

# ‘변화와 혁신, 안전하고 행복한 완산’

전주시 완산구, 신년 브리핑 통해 구정 운영 5대 추진 방향·15개 핵심 목표 제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가 갑진년 새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발맞춰 변화와 혁신을 통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완산구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7일 열린 완산구정 신년 브리핑을 통해 ‘변화와 혁신, 안전하고 행복한 완산’을 슬로건으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4년도 구정 운영 5대 기본방향과 15개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5대 기본방향은 △신뢰와 소통으로 다가가는 ‘책임행정’ △따뜻한 배려로 모두 같이 ‘공감복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시민안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순환’ △다시 회복하고 더욱 성장하는 ‘상생경제’이다.

먼저 구는 ‘신뢰와 소통으로 다가가는 책임행정’ 실현을 위해 △더 시민 결의로, 더 현장 속으로 밀착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 행정 △투명하고 공신력 있는 청렴 행정 추진에 공을 들인다.

특히 기존 동장의 비정기 순찰을 개선해서 1일 1회 ‘동네 한 바퀴’ 집중현장 순찰제를 운영한다.



전주시 완산구가 갑진년 새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발맞춰 변화와 혁신을 통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완산구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상습민원지를 주요 순찰지역으로 선정하여 시민불편사항 사전 점검 등을 하게된다. 구체적으로 청소취약지 점검, 붕괴위험지역·방역취약지 점검, 민원창취 등이다.

또, 대상1·동서화1지구 등 주요 지적재조사 지구의 경계 확정 전 감정평가액 사전 안내와 현장상담소 운영 등 시민에게 밀착하여 다가가는 책임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따뜻한 배려로 모두 함께하는 공감복지’ 구현을 위해 △맞춤형 복지 안전망 구축 △전 생애 계층별 생활복지 구현 △민관 협력 복지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정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적기 지원과 이웃사랑 나눔을 위한 민·관 협력 등을 추진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시민안전’ 분야의 경우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완산 구현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구축 △건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올바른 위생문화 조성을 핵심 목표로 삼아 현장 중심의 안전행정을 추진하는데 집중한다.

대표적으로, 한발 앞선 재해 예방을 위해 4억5000만 원을 투입해 다가교 등 언더패스 및 침수위험 지하차도 등

에 대한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위생관리등급 평가제 등의 실시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1억 1200만 원을 들여 공원 및 하천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동시에 구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민의 원터’ 조성 △도시 속 힐링 공간 ‘생태하천’ 관리 강화에 주력한다.

특히 구는 올해 기린공원 등 11개 도시공원의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전주천·삼천 등 21개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힘쓰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끝으로 △일자리 사업 추진을 통한 취약계층의 안정적 삶 기여 △내실 있는 공공일자리를 사업을 추진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사후관리, 찾아가는 인력사무소 등록서비스 운영 등으로 민생 행정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시민과의 접점에서 현장 중심의 밀착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구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탄탄한 구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마을버스 ‘바로온’ 한복 입고 승객 맞이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의 운전원들이 설 명절을 맞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승객을 맞는다.

7일 전주시실업재단(이사장 구대식)에 따르면 바로온 운전원 30여 명은 9일부터 나흘간의 연휴 기간 생활한복을 입고 버스 운행에 나선다.

설 명절을 맞아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명절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한 이른바 ‘한복데이’ 이벤트다.

이를 통해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을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2021년 설부터 추석 등 매년 명절마다 ‘한복데이’를 운영해 왔다.



특히 올 설부터 명절 당일 하루만 운영하던 것을 명절 연휴 기간 전체로 확대했다. 통일된 디자인의 생활한복을 구입해 시작적인 효과도 높였다.

마을버스 ‘바로온’은 공영버스로 도심 외곽 지역의 교통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20년 11월 18개 노선의 운행을 시작했다. 지난해 총 27개로 노선을 확대했으며 차량도 14대에서 25대로 늘려 시민 편의를 높였다. /김옥기 기자

## 설 연휴 전통문화행사 ‘풍성’

전주 전역서 전통놀이·공연 등 다채롭게 진행

전주시는 설 연휴를 맞아 전주한옥마을과 전주역사박물관,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전주 전역에서 풍성한 전통문화행사가 펼쳐진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대사습장에서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브랜드 공연이 펼쳐진다.

첫날인 오는 8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무용단과 (사)국가무형문화재 봉산탈춤보존회가 전통무용과 함께 판소리, 풍물놀이, 봉산탈춤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둘째 날인 9일에는 전주농악보존회가 풍악으로 흥겨운 포문을 열고, 대한민국 전통무용협동조합의 한국전통무용도 펼쳐진다.

또한 전주한옥마을 내 우리놀이터 마루담에서는 ‘웃음을 찾아라’를 주제로 웃놀이와 웃점 등 웃과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는 대표캐릭터 호사원을 활용한 포토존에서 사진찍기와 한지엽서 증정 이벤트 등이 함께 운영된다.

이와 함께 전주한옥마을 내 다양한 문화시설에서도 시설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전주전통술박물관에서는 석탄주 탁주 시음·판매행사와 모주 쪼이 기 시연, 잔 모주 체험이 펼쳐지고, 전주부채문화관에서는 함축선과 단선 부채 체험 합인 이벤트가 진행된다. 또, 전주완판본문화관에서는 목판 인쇄와 완판본 필사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에서 설 연휴를 맞아 시민과 귀성객, 관광객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전주역사박물관에서는 용 모양 가방고리 및 입춘대길 장식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해 소원나무 등이 설치돼 새해 소원을 기원할 수 있다. 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영화관도 운영된다.

전주지점놀이점수관에서는 기점놀이 체험, 장구 등 전통악기를 배울 수 있다. 설날 당일에는 제비연 날리기와 켄리링 손재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외에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압화액자·사각한지 서랍장 만들기와 쌀장정 만들기 등 체험행사가 운영되고, 전주천년한지관에 있는 한지 제조와 한지 공예 등 한지문화를 체험하고 한지탈려와 한지재기 만들기 등도 마련된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공장은 “청룡의 해를 맞아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에서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다음번에 또다시 방문할 수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남전주새마을금고, 백미 기탁

남전주새마을금고(이사장 권혁신)는 7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백미 690kg을 중남동주민센터(동장 양명숙)에 기탁했다.

남전주새마을금고 권혁신 이사장은 “제공해드리는 쌀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2024년에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명숙 중남동장은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해주신 남전주새마을금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소외되는 이 없는 행복한 중남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 설 명절 맞아 복지 현장 방문

경로당·장애인거주시설 찾아 새해 인사 전하고 애로사항 청취

우범기 전주시장은 7일 송천2동 한양 경로당과 용복동 소화진달네집 등 복지 분야 민생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 시장은 한양경로당을 이용하

는 노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고, 덕담을 나누며 동절기 안전과 불편사항 등 경로당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전주지역에는 666개 경로당이 있으며, 약 2만6023명이 이용하고 있다. 시



우범기 전주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경로당과 장애인거주시설을 찾아 새해 인사를 나눴다.

는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와 냉·난방비, 간식비, 동절기·하절기 특별생난방비를 회원 수에 따라 개소당 572~592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요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을 위해 동절기난방비를 3만원 인상한 월 4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월 4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해 한파와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의 건강을 돌보기로 했다.

우 시장은 이어 장애인거주시설인 소화진달네집을 찾아 29명의 종사자와 30여 명의 시설거주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기도 했다. 소화진달네집은 완산구 용복동에 소재하는 시설로, 사회복지법인 소화자매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성인 여성 지적장애인 3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푸른용의 기운이 가득한 새해 설 명절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신바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